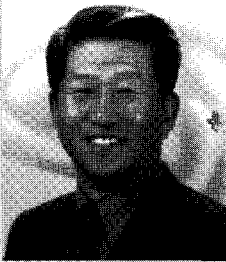


## 디지털 전문그룹으로 새롭게 도약 준비

### 시대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처



김도형  
(주)상보 대표이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흐름을 맞춰가며 기업이 운영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론 과감한 투자와 결정이 기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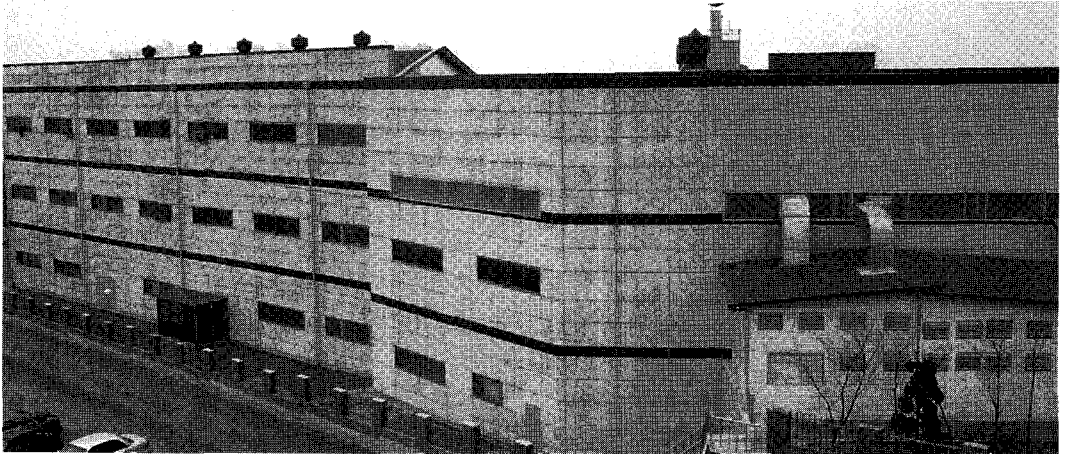
1977년 상보화학으로 출발, 1989년 상보화학(주)으로 법인전환을 시작으로 지난 2003년 다시 새롭게 도약을 시작한 (주)상보(대표이사 김도형)를 찾았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미디어포장재의 생산을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제2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 쪽으로 주력생산품을 바꿈으로서 상호명에 화학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음이 판단되어 (주)상보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주)상보는 창업이래 20여년을 오직 미디어 관련포장재생산 사업에 정진한 결과 현재 전세계 미디어 팩키지



▲ (주)상보 생산제품



▲ 경기 김포에 위치한 (주)상보 공장 전경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할 만큼 세계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모범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디오, 비디오 카세트 및 광학 미디어제품 포장용 필름으로 지난 7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전세계 70%를 점유한 오버랩핑 필름(OVER WRAPPING FILM)은 그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헤드클리너 작용도 가능한 리더 테이프(LEADER TAPE), V-0 / C-0 로딩방식을 능가하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호평받고 있는 스플라이싱 테이프(SPLICING TAPE), 테이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인쇄를 통해 광고효과를 누릴수 있는 라이너 시트(LINER SHEET), 비디오

카세트테이프의 보관·광고용 피피 재킷(PP JACKET), 파손에 강하고 성형이 쉬운 보호·광고용 제품 피피 북 케이스(PP BOOK CASE) 등 상보는 그동안 다양한 환경친화적 미디어 제품 개발에 주력했다.

또한 (주)상보는 석유화학 물질(합성수지)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압출, 가공하여 각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고기능성 소재를 연구개발, 생산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포장용(stretch 랩) film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품질의 차별화로 기술 우위를 지켜왔다.

산업포장용 필름으로 투명성과 인장강도가 탁월한 피

랩 필름(P.E STRETCH FILM), 병류 라벨용 필름으로 인쇄성이 우수해 광고효과가 높은 피이 신축 라벨용 필름(P.E STRETCH LABEL FILM), 국내 유일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초박형 제품인 피피 초박형 고투명 시트(P.P SHEET), 고기능성 지능형 식품포장재 선도유지용 기능성 필름(PROVAC), 신선도유지 및 항균 기능성 식품 선도유지 물질인 스토막세라믹(STOMAC CERAMIC) 등은 (주)상보의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현재 (주)상보는 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마포 사무소와 생산 및 연구소가 자리한 경기 김포 공장에 150여명의임

## Sang Bo

직원 및 연구실 인원 10여명이 미디어, 산업재, 기능성 제품군에서 모두 22여종의 품목을 생산하며 지난 2003년 매출액 380억을 올리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주)상보는 지난 89년 '일백만불 수출탑 수상'을 시작으로 97년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00년 '1천만불 수출탑 대통령 산업훈장 동탑 수상'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대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등 탄탄한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미래를 앞서가는 기업 (주)상보는 미디어 관련분야에 주력하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데 어려움을 느껴 종합적인 기술인 디지털 관련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김도형 대표이사는 "지난 해 말 아산공장을 설립하여 실제 사진하고 차이가 없는 디지털

포토용 인화지 제품개발에 성공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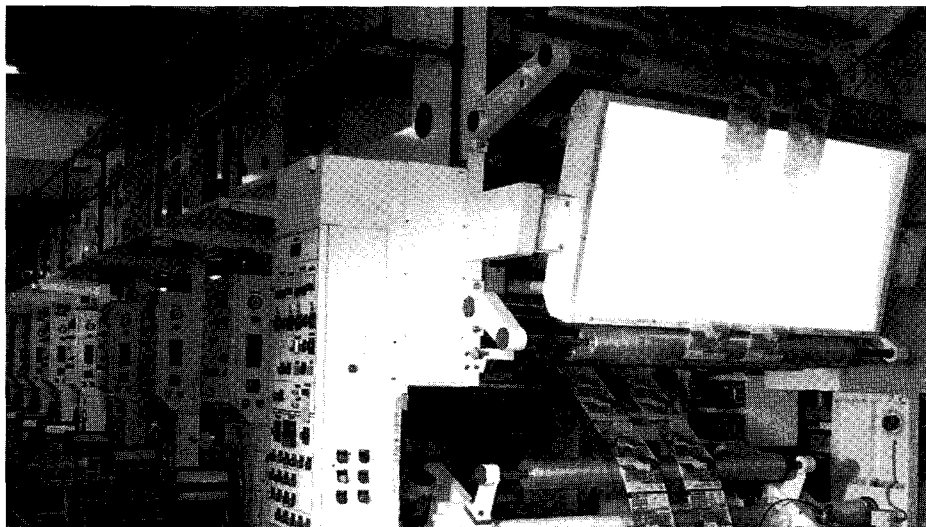
(주)상보는 올해 말 세계 우수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디지털 필름분야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한번 체계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김도형 대표이사는 "(주)상보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미디어 분야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관련 소재 부품쪽으로 전문적인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장은 "IT 산업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해외의존도는 50%가 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숙제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의 이런 경영방침은 IMF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오히려 디지털 관련 분야에 90억원을



▲ (주) 상보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교정기



◀(주)상보가 보유하고 있는 그라비아 인쇄기

투자하는 등 과감한 도전으로 위기사항을 재도약하는 기회로 만든 것이다. 항상 새롭게 발전하고 도전을 피하는 (주)상보의 사훈 중에는 '이윤'이라는 주목할 만한 문구가 있다.

김도형 사장은 "회사가 이윤을 내지 못하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발전을 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의 피해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이윤 목적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회사의 올바른 운영방침을 되짚어보게 하는 것이다.

이에 직원들은 신소재 분야의 제품을 한발 앞서 개발하여 품질의 우위를 확고히 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 Audio, Video용 Overwrapping Film 개발, 세계에서 4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디지털프린터용필름 개발, 국내 유일의 초박막 PP Sheet 생산기술 보유 등의 알찬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주)상보. 생산, 영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TOTAL R&D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요구를 제품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며, 한발 앞선 유망 신소재 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해가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도형 사장은 앞으로 필름 소재 전문 회사로 연구개발을 위한 과감한 재투자와 시설확장으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품질경쟁에서 선두자리를 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있는 고객만족으로 제품을 통한 상보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김도형 사장.

약방의 감초처럼 (주)상보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겠다는 김 사장의 바람처럼 작은 거인이 아닌 큰 거인으로 발돋움하는 화학전문기업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K]

이한얼 기자